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1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5월 22일 (음력 4월 18일) 수요일

‘기후변화’ 전남 수산 양식지도 바꿨다

기후변화에 따라 전남지역 연안해역의 양식장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표층 수온이 최근 30년간 남해 1.04℃, 서해 0.97℃ 상승하고 겨울이 한 달 정도 단축되고 여름은 20여일 증가했다.

전남지역은 최근 38년간 연평균 수온이 0.8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어류와 패류, 해조류 등 양식장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양식어류가 조기성장과 사육기간도 단축되고 있다.

어류는 수온이 15℃ 이상일 때 성장하는

패류·해조류 조기성장 사육기간단축 등 양식순기 변화

전남도 신품종 개발 등 지속가능한 양식환경 조성 총력

데, 수온 상승으로 인해 그 기간이 7개월에서 8~9개월도 늘어났다.

굴, 새꼬막, 홍합 패류는 채묘시기 등 양식순기가 변화했다.

여수지역의 경우 굴 채묘시기는 6월 중하순에서 상순으로 20여일 앞당겨졌고 새

꼬막 4~5월에서 3~4월로 1개월 이상 채묘시기가 앞당겨졌다. 홍합은 추계채묘시기가 10월 중하순에서 11월 중하순으로 약 1개월 늦어졌다.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양식순기도 달라졌다. 김성장적정수온이 5~8℃에서 10

℃전후로 약 2~3℃ 상승했으며 채묘시기가 9월18일에서 10~15일 정도 늦어졌다.

전남지역 양식 환경 지도가 바뀐 것이다. 이와 함께 진도를 중심으로 전남 연안 감태·곰피 등 서식 분포해역이 확산하고 있다. 아열대성 유해생물과 적조생물 출현종도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 아열대해역에 서식하는 대형 맹독성 '노무라위깃해파리'는 남·서해안에 집단 출현해 생태계 교란 및 어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해수 온도가 상승에 따라 어병 발생과 확산을 가속화하는 미생물 및 기생충 번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해양수산기술원을 중심으로 전남도가 대응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주요양식어종 수온과 염분농도 측정 등을 위한 실시간 연안어장 관측시스템 구축사업을 2022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고수온에 강한 진북종자 개발과 김, 다시마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해조류 신품종 개발에 나서고 있다.

참조기, 부세, 능성어 등 수온상승에 따른 아열대성 양식가능 품종에 대해 시험양식을 진행 중이다.

진북, 어류 등 종자를 중간 양성 후 해상 가두리나 축제식 노지양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 미생물을 활용한 배합사료 제조시설도 구축에 나섰다.

전남도해양수산기술원 김일용 남부지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양식환경이 바뀌고 고수온, 적조 등 재해가 연례화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강화와 신품종 개발 등으로 지속 가능한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한빛원전 1호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최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택시운전원 역할 중요”

이용섭 시장 택시 친절 결의대회 참석...긍정적 이미 개선 양장 결의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2019광주세계수

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원들의 참여와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기원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운행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정

등광 법인택시 이사장, 이길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최진영 광주지역택시노동조합의장, 안운택 민주택시노조 광주본부장 등 택시운수종사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시장은 "39년 전 민주기사가 국가폭력과 계엄군의 무지비한 진압작전에 당당히 맞서 시민항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지난 4월에는 택시업계 노사가 민간부문에서 가장 먼저 '노사상생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에 동참하는 등 광주가 시대정신을 좇아 중대한 결심을 하고 행동할 때마다 택시운수 종사자들께서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 택시운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친절함 미소와 안전운전이 광

주의 첫 이미지가 될 것이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여러분을 통해 광주를 기억하고 광주를 다시 찾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외국인들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해 광주의 긍정적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자고 결의했다.

서은홍 기자

◆본보 창간 12주년

기념행사 5월 31일

Photo漫評

신경전

노무현재단유시민이사는 최근 양정철민주연구원장의거듭된 정계복귀 요청에 "원래 자기머리는 못깎는다"고 답해 여론을 낚았다. 유 이사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양원장 김어준 씨와 유시민의 알뜰레오를 결합 토크콘서트를 하는 와중에 딱 부러지는 분이 왜 자기 앞집은 명확하게 결정 못하느냐는 양원장의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양 원장은 유 이사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47세의 나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점을 언급하며 "벼슬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헌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때가 되면 역사 앞에 겸허하게 나서야 한다", "대외에 충실히 복무 하시길 바란다"며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관련 인사들의속세를 상상 해 본다.

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소비가자가 선택한 2019년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 '메타세쿼이아길'